

정기
총회

2004년 벤처기업협회 임원진

회장



장 흥 순
터보테크 대표

부회장



변 대 규
휴맥스 대표



김 형 순
로커스 대표



이 금 룡
이니시스 대표



조 현 정
비트컴퓨터 대표



안 철 수
안철수연구소 대표



남 민 우
다산네트웍스 대표



김 태 희
CNS 대표



권 석 형
렉스진바이오텍 대표



이 재 응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



김 범 수
NHN 대표



송 승 환
PMC프로덕션 대표



박 성 찬
다날 대표



황 기 수
코아로직 대표



양 덕 준
레인콤 대표



최 선 호
토마토LSI 대표



이 성 민
엠텍비전 대표



백 중 진
한글과컴퓨터 대표



신 원 호
태화일렉트론 대표



배 희 숙
이나루T&T 대표



여 미 정
디앰플러스 대표



우 성 화
티켓링크 대표



최 신 규
손오공 대표



이 영 남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전 하 진
INKE 의장

협회는 새로운 벤처 경영환경에 발맞춰 신세대 벤처CEO를 임원진으로 대거 영입했다. 새로 선임된 부회장은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재웅 대표 ▲NHN 김범수 대표 ▲PMC프로덕션 송승환 대표 ▲다날 박성찬 대표 ▲코아로직 황기수 대표 ▲레인콤 양덕준 대표 ▲토마스LSI 최선호 대표 ▲엠텍비전 이성민 대표 ▲한글과컴퓨터 백종진 대표 ▲태화일렉트론 신원호 대표 ▲이너루T&T 배희숙 대표 ▲디엠플러스 여미정 대표 ▲티켓링크 우성화 대표 ▲손오공 최신규 대표 등 이다. 또한 ▲옴니텔 김정선 대표 ▲하늘교육 서진원 대표 ▲아미티에 김정식 대표 ▲아이디스 김영달 대표 ▲롬앤데코 양진석 대표 ▲이노디지털 김종락 대표 ▲인프라벨리 최영규 대표 등 7명이 이상으로 새로 선임됨으로써, 임원진이 기존 35명(회장단 13명, 이사 22명)에서 48명(회장단 25명, 이사 23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협회는 새롭게 떠오르는 벤처인들을 대거 임원으로 받아들여 벤처산업이 다시 한번 봄을 일으키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이사



김 홍 선
시큐어소프트 대표



김 진 태
유비케어 대표



하 정 을
코어세스 대표



홍 지 준
코캠엔지니어링 대표



박 진 환
네오위즈 대표



임 병 진
성진C&C 대표



김 덕 우
우리기술 대표



권 석 철
하우리 대표



김 병 기
지오인터랙티브 대표



방 준 혁
넷마블 대표



서 진 구
코인텍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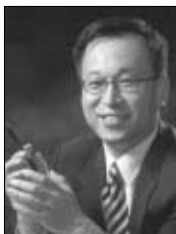
이 용 석
에스컴 대표



이 승 일
아후코리아 대표



김 윤 호
에이플스 대표



임 윤 철
기술과가치 대표



정 회 훈
이커뮤니티 대표



김 경 선
옴니텔 대표



서 진 원
하늘교육 대표



김 정 식
아미티에 대표



김 영 달
아이디스 대표



양 진 석
롬앤데코 대표



김 중 락
이노디지털 대표



최 염 규
인프라벨리 대표